

건강 칼럼

### 임플란트, 수술 부담 큰 당뇨·고혈압 환자도 가능한 경우는?

**건강** 치아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치아는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데 관여할 뿐 아니라 발음, 심미성 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평소 하루 3번 이상 칫솔질을 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등 치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치아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해 치아를 잃기도 하며, 충치 혹은 치주염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치아를 잃는 경우도 있다. 영구치는 한번 상실하면 다시 회복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했다면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선호도가 높은 자연치아의 대체 방법으로 임플란트가 있다. 임플란트는 주변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저작기능이 우수하다.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자연치아와 흡사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잇몸뼈를 절개하여 잇몸뼈를 노출시킨 뒤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비싸고 수술 후 출혈, 통증, 부종, 감염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임플란트 고정에 중요한 잇몸뼈가 노출되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서 임플란트 수명이 저하되기도 한다. 이에 고령층이나 당뇨·고

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는 임플란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통증, 출혈 등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고인된다면 무절제 임플란트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잇몸 절개 없이 임플란트만 간단하고 빠르게 식립하는 방식으로 한 개 당 2~3분 이내에 식립이 가능하다. 또한,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이 거의 없고 임플란트 주변부의 뼈 상실을 감소시켜 임플란트 수명을 증가시켜주는 술식이기도 하다.

다만,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는 수술 전 체계적인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수술을 빠르게 마치고 안정적인 저작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전에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술 전 병력과 복용 약 등은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한다. 식립 후에는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루 3번 이상의 칫솔질과 치실, 치간 칫솔 등으로 임플란트 주변에 치태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꼼꼼한 상담을 통해 혈당 및 혈압 관리를 반영한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난도가 높은 치료이므로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하 랑

잠실동 연세하림치과 대표원장

## 사설

### 전북대 반도체 인력 양성

전북 도내 대학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재 유출도 막을 수 있어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전북대가 최근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마다 1백 명이 상석 4년간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북대가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대는 이미 최신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연구가 한창이다. 이 학교에서 반도체를 공부한 대학원 졸업생 90% 이상이 대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 신소재공학부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산업에 이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취업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동안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도, 반도체 인력 양성 기반과 관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 대학에 밀려 인재 확보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돼 한층 더 경쟁력을 높일 토대를 갖추게 됐다.

앞으로 4년 동안 3백80여여원을 지원받아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분야 등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해마다 1백 명 이상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꾸리고, 인력 양성에 필요한 특화 공장과 전문 교육 시설도 마련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 인재가 이탈되지 않고 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 거점 국립대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학령인구 감소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방대 존립 기반을 되살리고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벌써부터 쏠리고 있다.

### 팬카페 영웅시대

시니어 팬덤 이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시니어들 또는 그런 문화 현상을 말한다. 가수 임영웅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의 회원 수가 지난 4월 19일 기준 19만 명을 돌파했다.

2017년 팬카페 개설 이후 만 6년 만의 기록이다. 지난 2020년 '미스터트롯' 출연 후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4월 8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대구FC의 K리그 경기가 열렸다.

이날은 평소의 4배가 넘는 4만여 명의 관중이 몰렸다. 경기장에는 40대부터 70대까지 중·장년 여성층이 주를 이뤘다. 이들을 경기장으로 부른 이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다.

그는 이날 FC서울 초대를 받아 시축 행사에 참여했다. 이 소식이 들리자 팬클럽인 '영웅시대'를 주축으로 그의 팬이 몰려들었다.

요즘 중·장년 여성층이 주목이 된 임영웅의 팬들은 일찌기 광고하는 제품을 연일 '완판' 시키고 있다.

팬의 주축인 '시니어 여성'들은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가수의 음악을 즐겨왔다. 이들은 추억을 회상하며 임영웅에 몰입한다. 대중들이 '임영웅'에 열광하는 것은 스타 자체의 경쟁력이다.

그는 스토리가 매력적인 데다, 실력이 뛰어나다. 임영웅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랐다. 가수가 된 후에도 불러주는 곳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다. 편의점, 카페, 택배 상하차 등을 전전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순수하게' 실력만 보고 뽑는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다. 바야흐로 시니어 팬덤이 대세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에콰도르 대선서 35세 노보아 후보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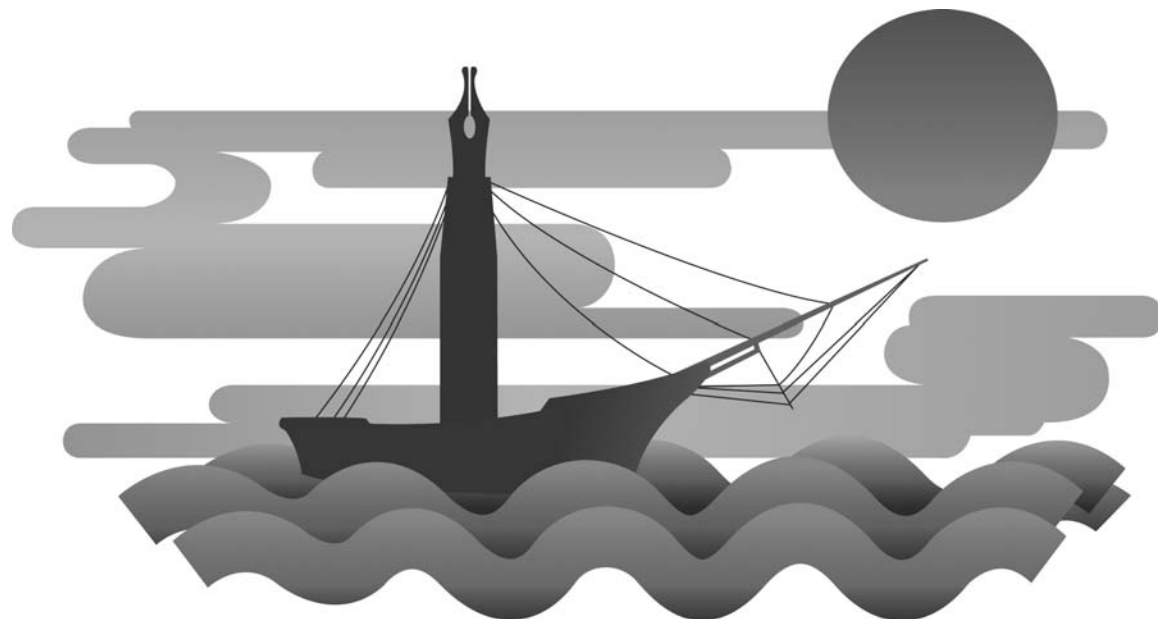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국민민주행동(ADN) 다니엘 노보아(35) 에콰도르 대선 후보가 15일(현지시각) 울론에서 결선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탄핵 위기를 맞은 기예르모 라소 현 대통령의 조기 퇴진 결정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노보아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다.

#### 아제르바이잔 국기에 입 맞추는 알리에프 대통령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나고르노-카라바흐주 칸켄디에서 아제르바이잔 국기를 게양하면서 국기에 입 맞추고 있다. 알리에프 대통령은 카라바흐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아르메니아와의 분쟁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알렸다. 칸켄디는 아르메니아에게 주민들이 스테파나케르트로 부르며 머물던 곳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